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집으로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충청교회사서목발식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ANG H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복음성가 대신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적으로 모든 예배와 집회시간에 복음성가 대신에 찬송가를 부르기로 하였다. 이것은 찬송가 또는 복음성가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찬송을 드리기 위한 결정인 것이다. 현대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하나님 중심의 찬송에서 점차 사람 중심의 복음성가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찬송가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 되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총현의 모든 찬양대를 포함한 모든 부서는 예배시간뿐만 아니라 집회시간에도 복음성가를 대신하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란다.

'잔' 이번 주 금요일회 시간에 발표

성경은 '잔'이라는 생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기록의 잔' '별명의 잔' '진노의 잔' '고난의 잔' '회개와 잔' '구원의 잔' '은혜의 잔' 등으로 주제를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시금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잔'에 대한 주제는 그 동안 이름 분의 장로들께서 여러 달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했으며,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도로 준비했다. 앞으로는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살펴봄으로써, 더욱더 말씀을 기초로 하는 구속사 중심의 복음적인 신앙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엔 발표하는 '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말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나니 우리가 때는 떠은 그리스도의 몸예 참여함이나니"(고전 10:16)

지난 수요일에 배서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바울

(행 13:44~48)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던 바나바와 교회를 필박하던 사울(9절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기록되기 시작함), 그리고 마가 요한은 성경의 보배함에 따라서 첫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하였다(2절). 그들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5절), 이들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에서 오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13절).

그후 다시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금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회당장들의 요청에 따라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다(16). 그의 설교는 사도행전 4장의 스테반의 설교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던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스테반의 설교는 구약을 격하시키는 설교라고 평가하며 분노하여 기록을 필박하였다. 그러한 바울이 지금은 오히려 스테반과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었다. 당시 다른 것이 없다면, 스테반의 설교가 구약에 머무른 것에 비하여, 바울의 설교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른 것이었다(17절~25절). 예수를 필박하던 그가 구약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24절~41절).

바울의 설교는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에게 설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42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음 안식일에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으나(44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방인들도 인하여 시간이 가득하게 되었고, 바울이 말한 것을 번박하고 비방하게 되었다(45절).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에는 마음이 열렸으나, '모인 무리'(gathering crowds)로 인하여서는 감안이 생긴 것이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이방인이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언제나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바울의 설교는 마음에 들었으나, 헬물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이다.

유대인들(ews!)에 대해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는 11장 47절~53절에서 예수와 권위를 두드리하며, 예수를 향해 절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처

음부터 복음의 원칙을 모르는 철저한 분리주의자들이요 헬물종교적인 자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였지만, 자신의 헬물을 의지하고 차별의식으로 굳어진 그들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참된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들의 변심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될 결심하게 되었다(4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 하였다. 기록한 백성이 되는 일은 '조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헬물에 의지한 차별의식과 분리주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 아브라함도 율법이 존재하기 4백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논증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선포하였다(행 18:6). 그는 이사야가 선포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할 이방의 빛에 대한 언약을 선포한 것이다(사 49:6).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설교를 듣고 정작 기뻐한 것은 이방인들이었다(48절). 그들이 '기뻐'했다는 의미는 마태복음 5장 11,12절의 "너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때의 기쁨을 의미한다.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집착하였던 열심있던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의를 깨닫게 되자, 많은 유대교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바울의 결심! 그것은 전적인 믿음의 삶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열심있던 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빛으로의 삶을 의미한다. 고부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위한 믿음의 삶을 의미해 말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서 땅으로 향하는 사람, 그리고 땅에서 천국을 향해 향하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땅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지상을 향해 향하는 사람은 세상의 흥망을 좇고 존경받는 사람이 신장입니다. 그들은 땅위에서 참된 것을 찾으려고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배서지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신학 탐

행위언약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할 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니 언약을 맺으셨고, 인간이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주신 커다란 은혜이다.

행위언약의 근거는 창세기 2장 16절~17절이다. "여호와와 하나님님이 그 사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언약이란 말이 없었지만, 언약을 성립시키는 약속과 조건, 행벌과 상징 등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행위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행위에 따라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으로, 믿음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한 '은혜언약'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인간들 사이의 언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기초가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지는 대가는 영생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언은 순종하면 영생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창2:16-17). 원래 인간은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죽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순종할 때는 약속된 영생에는 죽음의 가능성조차 전혀 없는 생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언약은 율부가 아니라 은혜인 것이다. 단지 조건이 있었다면 순종하는 일이다. 그것도 기계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행위언약을 깨뜨리므로 그 행벌은 사망이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롬 5:19). 사망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단절로 나타난다. 상징은 향나무무디(창 2:9,22). 향나무는 세리와 불순종의 기준인 선악과와 더불어 생명의 나무를 행위언약의 상징으로 주셨다. 행위언약 불순종의 고통을 절감하면서, 은혜 언약의 조건인 믿음을 거부한 자들의 비참(지옥)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진해야 한다.

이중 대 (목사, 소망부 지도)

Little wrath & Great wrath

(Isaiah 54:7-10)

“For a brief moment I forsook you, but with great compassion
I will gather you.
In an outburst of anger I hid My face from you for a moment,
but with everlasting lovingkindness”

This Bible passage is so important to Christians. It is the property of all believers. When we practice our faith this wonderful passage is really the original thing. Our rightful claim to its promises can be found at the end of verse 17, “This is the heritage of the servants of the Lord. And their vindication is from Me, declares the Lord”. Amen. This is our treasure. These words are like final words when we believe them. Please let’s not forget them and truly hold them in our hearts to enjoy, for they will never fail us. Their promise comes to us after Isaiah 53. In Isaiah 53 we find the Lord’s great griefs, “He was despised and forsaken of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 He was despised, and we did not esteem Him” (v. 3). The prophecy of Jesus’ suffering and dying for us is clearly manifested in this whole passage, especially verses 4-6. God’s great wrath required Jesus’ great suffering. Only after Isaiah 53 comes happiness and God’s little wrath.

Can any Christian compare the cross with their own suffering? No one can make such a comparison because at the cross is God’s love. Humans cannot understand such love through their own knowledge. They cannot believe in such love through their own power. But as God’s child, if they understand more and more, they have power. They can have victory from Satan’s attacks because God’s great peace is sitting in the midst of the afflicted. Our afflictions are not permanent sufferings, only temporary. They’re endurable because they’re not God’s final judgment. Why? Because of God’s great love we find in Jesus Christ.

As servants of the Lord, we will experience a little wrath but not great wrath. “In an outburst of anger I hid My face from you for a moment” (v. 8). The original Hebrew meaning of

“outburst of anger” is small wrath or little wrath. This little wrath is only “for a moment”. What can be shorter than a moment? Our view of “a little wrath” and “for a moment” is different than God’s view. There are many times in which we perceive suffering as lasting a long time or what seems like forever. We think God has hidden His face from us endlessly. But that is our foolishness. It is our unbelief, weak faith, and doubt that causes us to think so wrongly. God is real. He is kind. He is mercy. We have to believe in Him. In His viewpoint our sufferings are only a small amount and but a little while. Can you compare a little while with eternity or with eternal love? We only need to endure for a moment, for soon all suffering will pass away. All we have to do is repent and pray and everything will pass. His rewards are going to be great.

The Lord our Redeemer says, “but with everlasting lovingkindness I will have compassion on you” (v. 8). The wrath of our Redeemer’s everlasting lovingkindness is so small. The wrath of the Holy One is so short. Its expression is not severe. His face and heart don’t change in the moment. Actually,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our afflictions He holds us tightly and continually. His love is always present. His love endures all things. Even though He gives us a little wrath, His love never changes. He only wants us to change. He rally wants us to repent. He wants to give us eternal lovingkindness. He is our Redeemer and Savior. Our duty is to be sad and regretful over His anger toward us. So let’s be humbled and sanctified by it and not faint or give up because of it.

The big wrath, great wrath of God is finished. He tells us, “For this is like the days of Noah to Me, when I swore that the waters of Noah would not flood the earth again; so I have

sworn that I will not be angry with you nor will I rebuke you” (v. 9). The flood of Noah was God’s big wrath of eternal punishment. That wrath will never return to the earth because of God’s promise. Since Noah, centuries have gone by without Noah’s flood. We will never experience Noah’s flood again. Why? Because Jesus took it. Instead of God’s great wrath falling upon us, Jesus took it upon Himself,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for us” (Gal. 3:13). He’s the one who changed God’s great wrath to a little wrath upon believers. Christ Jesus is He who died (Rom. 8:34)! Indeed,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has He removed our transgressions from us” (Ps. 103:12). My friends, that’s how much Jesus changed things for us. Praise the Lord!

God has sworn that He will not be angry with us nor will He rebuke us like Noah’s generation. His promise to Noah is big but we have an even bigger promise than Noah. We have Jesus Christ. “For the mountains may be removed and the hills may shake, but My lovingkindness will not be removed from you, and My covenant of peace will not be shaken, says the Lord who has compassion on you” (v. 10). Isn’t that amazing good? God’s lovingkindness and peace toward us will never change. How much doubting, unbelieving, and disobedience can we find in our faith? Unfortunately, too much. But how safe is God’s promise? Fortunately, eternally safe. Hallelujah!

The Lord of glory give us lovingkindness forever and ever, eternally. Don’t ever despair or give up on His love. The Holy Spirit is with us forever. Just be humble, deny yourself, take the cross, and follow Him. This present time is only temporary, short, and for but a moment. Amen. 



김성록 목사

작은 분노, 큰 분노

(사 54:7~10)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큰 분노, 예수의 큰 고난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모든 신자들의 자산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믿음대로 실천하려 할 때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그 약속을 향한 우리의 정당한 요청을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와 종들의 기쁨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와 같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이사야 53장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여호와와 그 큰 슬픔을 발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3). 우리를 위한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은 오늘날 본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4절부터 6절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분노는 예수께서 큰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53장이 지나야만 행복과 하나님의 작은 진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는 일시적인 고난

그 어떤 신자가 자신의 고통을 감히 십자가에 비교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한 이들은 능력을 소유하여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후시는 위대한 평강은 고통의 한 가운데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통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아니므로 건달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인쇄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큰 분노가 아닌 작은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와 같이니라(8절).” 넘치는 분노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작은 분노”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 순간보다 더 짧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작은 분노”와 “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종종 그 고난이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또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영원히 숨기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릇된 판단들은 단지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며, 우리의 불신과 약한 믿음, 그리고 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고난은 오직 작은 것이며 잠시 동안일 뿐입니다. 이 잠깐의 순간을 영원 또는 영원한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순간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며, 주께서 커다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자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와 같이니라(8절).” 영원한 자비를 가지신 우리 구속자의 분노는 아주 작습니다. 거룩한 자의 진노는 아주 짧습니다. 그 표현조차도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과 마음은 그 어느 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꼭 볼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작은 분노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슬픈 마음으로 반성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 진노를 통해 경이하게 나아가 기록해져야 하겠습니다. 그 분노에 기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큰 분노가 작은 분노로

하나님의 큰 분노, 곧 거대한 분노는 끝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이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9절). 노아의 홍수는 큰 분노인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다시는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 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 3:13). 예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큰 분노를 작은 분노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입니다(롬 8:34). “동일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바꾸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노아에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의 때처럼 분노하시거나 벌주시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커다란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노아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까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에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10절). 그 선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화평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을 생활에는 얼마나 많은 의심과 불신과 불순종이 있습니까? 불행히도 지난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안전한 것일까요? 다행히도 영원히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긍휼을 영원토록 베풀어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그저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떠나는 잠시 잠깐, 짧은 순간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H

믿고 나아가고 바라고...

정은 실 (대학부)



"믿음
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요 보지
못하는 것
의 증거니"
(히 11:1)

99년도에 LMTC 훈련을 통해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가슴 두근거리던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기에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매우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선교가 특정한 이들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랑임을 알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이 이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이 왜 그런지 단기선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휴학 중이었으며 2학기에 복학하고 함께 귀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3월에 있는 단기선교에 전신 전세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확신이 없었기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 그리고 4월에 있는 지난번에 완전히 수료하지 못했던 LMTC훈련을 다시 들으려고 했으나 여러 이유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LMTC도 수료하지 못했고 원신도 쓰지 않았기에 단기선교는 분명 제에게 있어 막혀져 있는 땅이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캔디모를 스리랑카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서 집에 누워 있다가 우연히 TV에서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송은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방송은 섬에서 정동지 어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 지금은 3월 정도 지난다고 그 농장에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견뎌왔는지에 대해 그 방송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 경험을 일으키며 땅을 기어다니

고, 땅이 먹는 음식을 먹고, 평소에는 갈로 잘라야 먹을 수 있는 단단한 과일을 자신들의 입으로 마치 동물처럼 물어뜯는 그들의 한을 푸는 의식을 보며 TV전행자들은 그들의 한이 너무 많아 그것을 통해 그나마 한을 푸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세계 위도 10도에서 40도까지에 있는 나라들 중에 많은 부족들이 이처럼 말도 안되는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다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러나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친구와 나누다가 정말 그 땅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저에게 스리랑카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밖에 없었는지 했습니다. '언제나 보내주 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아바라함도 잘 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이간 것처럼 하나님은 스리랑카로 보내주시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방학 중에 대학부 안에서 어떠한 사역으로 주님께 영감을 돌릴지 결정해야 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갈만한 가능성은 있었지만 스리랑카였지만, 마음에 있었기에 그냥 마음 속에 담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결연이 생겨 신청을 받는다라는 광고를 보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이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보았던 전 사실 보내시든지 보내지지 않든지 하나님께는 나에게 응답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바라게 하시고 이런 바르게 하십시오.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것이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이나 분명 통해 일하실 일이 있기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아무 것도 없고 오직 그분께서만 하실 것이기에 무엇을 보여주시길 어떻게 일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반응을 내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전처럼...

독립집회1주년 및 나담 기념 전도집회를 마치며

민 병 윤 (선교 전도사)



매년 7월 11~13일은 몽골의 나담 축제기간이다. 1921년 러시아 적군과 연합한 몽골군대가 중국과 러시아 백군 연합군을 무찌르고 국가 독립을 쟁취한 날이다. 그래서 지금도 몽골인들은 나담기간에 일을 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는 활쏘기, 말타기, 씨름 등 여러 경기가 열린다. 그런데 이 7월은 한국에 있는 몽골 형제·자매들에게 나담축제가 상의 의미가 있는 날이다. 작년 7월부터 중원교회와 몽골집회도 독립축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벌써 컷들을 맞은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특별전도집회를 갖는다.

7월14일 토요일 저녁8시부터 진행되었다. 많은 비가 내려 걱정했지만 서울, 포천, 광주에서 70여 명이나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세상의 물질이나에 대한 말씀의 도전을 시작으로, 바야르마·암가 등이 제복으로 간직된 기도하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후가 자매들이 정성껏 만든 전통음식 오소리과 몽골 요구르트인 타락을 먹으며 교제의 시간도 가졌다. 웃음과 사랑으로 훈훈한 밤이었다. 늦은 일부지만, 고한신 중들이 축복 자라고 있음을 보고 감사하였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라고 하는 동안,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천국비유가 정말 현실로 보여지고 있다. 물론 일부지만, 그토록 기대하고 관심갔던 자제는 떠나가는 반면, 전적 신실한 자를 얻어냈던 지체가 어느덧 공동의 새가 될 만큼 무성한 가지를 가진 믿음의 나무가 되어 있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오묘하다.

집회 다음날 찬양예배 후 성당에서 밋에르트 형제의 집과 망장수술한 바

라마의 집을 심방했다. 밋에르트의 가족사로 가는 길은 폭 90cm도 안되는 좁은 길을 약 30m는 코보코를 걸어야 했다. 그 옆에는 하수구가 좁고 길게 나있고 앞 옆에는 높은 벽이 천정까지 이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길을 '카타콤'의 밑길이라 부르는 길이라고 명명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흘린다고 그 형제를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다. 수송 후라 얼굴에 핏기는 별로 없었지만 환한 모습에 감사하였다.

바야르마의 집은 지하실인데 14일 밤에 내린 폭우로 한전이 물로 흥벅되어 있었다. 사후가 자매와 함께 만든 보오와 수대자를 마시며 함께 어려움을 위로하고 기도하였다. 비록 밤은 습기로 눅눅하였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훈훈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사후가는 14일 토요일에 몽골특별전도집회 및 독립집회 1주년 기념행사에 호소문을 만들어 썼다. 짧은 자매인데 참 신실하다. 밋다·수다가 귀국하던 날 송별예배한 눈물을 흘리던 그 자매, 몽골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그 자매, 컴퓨터자수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자매는 열매를향으로 현재 일이 없었지만, 14일 특별집회를 위해 자기가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니 일이 없게 된 것까지도 오히려 감사한다고 고백하였다. 그 큰 나눔을 얻은 것으로 두 분의 힘이 같 것은 아름다운 순종의 눈빛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몽골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농어촌 전도 은혜의 병상세례

김 용 연 (원사, 8교구)



처음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에 여윌게 농어촌 전도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차질없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계획하고 예정된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전도대원 전원이 비스에 순차하였다. 장미차이로서 가는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빗줄기가 굵어졌다. 나도 모르게 다소 불안하였으나 그 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불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대 보았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었다. 한 손가락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열려있는 것을 회개하고 눈과 내일 아름다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하였다.

예정시간보다 30분 늦게 목격되어 도착하였다. 오락

가락 하던 하늘은 어느새 환하게 개어 간간히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활동에 들어갔다.

12시부터 경로당에서 경로잔치를 베풀기로 예정되었다. 업무부 분담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주님을 위해서 밋의 자녀로서 초창한신 분을 위해서 전철회 안내해 드리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다. 한쪽에서는 이·미용팀이 할미마리 할머니의 머리를 손질해 드리고 있었고, 축조전도팀에서는 오신 분들을 한

분 한분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였다.

오후에는 축조전도팀이 인근 부락을 가가호호 찾아서 주민들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시라고 전하였다. 저녁 부흥집회를 위해서 교회 본당에 모였다. 평상시 주일예배를 드릴 때 10명 내외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린 성원이 오늘은 반지라기 없을 정도였다.

이번 여름 전도집회 가운데 홀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할미마리의 병상세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신병으로 가동이 불편하여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셨던 할미마리의 믿음의 장성함을 보신 목사님께서 그곳 지역교회 목사님을 말씀드리고 그 할미마리에 병상세례를 집례하게 되었다. 두 분의 목사님과 장로님 등을 모시고 할미마리의 병상세례식을 드렸다.

독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선포하신대 세례를 받던 할미마리는 물론, 세세대로 상속했던 가족과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 그 자리가 그토록 눈물 바다로 변하였다. 또한 주님을 믿지 않았던 할미마리의 아들들도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심령을 불쌍히 여시고 오세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확신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의 확신'을 여전히 '자기 양심'에 의해 결정한다.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주님을 항하여 이렇게 요청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눅 23:42).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무런 조건없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사죄에 대한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 자기 자신의 양심보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자기 자신의 죄악보다 예수의 피흘림을 의지하는 것 비록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자신의 양심이랄 보잘 것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양심의 가책보다 훨씬 거룩하고 위대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은혜의 각성에 대한 시작과 끝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양심이 은혜보다 양심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저 행악자는 정말로 양심도 없는 자다. 지금까지 별 악을 행하고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막판에 용서받고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예수를 항하여도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예수는 정말로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 만일 저 악한 자를 용서한다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이들은 계속적으로 은혜의 삶 대신에 율법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은혜의 삶 대신에 죄책감이라는 또다른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죄의 노예로서 말이다.

죄사함과 용서는 근본적으로 죄인에게는 권한이 없다. 죄사함과 용서는 단지 하나님의 의지 문제이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자신의 기준이나 양심에 의해 결정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넌 양심도 없니?'라고 인간의 부패한 양심을 부추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부인되어야 할 것은 부패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가장 악한 죄인을 천국으로 들이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주간충헌편집실)

매달릴 곳은 오직 하나님뿐

서경희 (집사, 11교구)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1, 4).

우리 가정은 날마다의 가정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매번 암송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암송해오던 티라 어떤 날은 습관처럼 의욕이 없었습니다. 특히, 나의 강한 자아가 살아 모든 것을 판단하던 날까지는 그랬을 또한 나의 느낌대로 해석해 버렸고, 나를 부르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도 무시해 왔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맘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없는 덩그러진 신앙의 소유자로 지내왔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때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습관처럼 주일을 맞이해 왔습니다.

이런 나태한 믿음의 반복되길 원치 않았던 주님은 내게 특별한 광야를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게으른 신자였던 나로써도 이 광야가 날 사랑하시는 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 내게 허락하신 광야는 '암'이었습니다.

한해 전에 받은 치질 수술이 재발하여 병원에 찾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심상치 않은 표정이 무척이나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 종합병원으로 옮겨, 다시 그 어려운 검사 과정을 거치고 나니 적잖았 37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 아끼 짝을 못 채워준 아이들 생각과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걱정이 앞섰고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었습니.

처음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 막상 돌아보니 나의 절친한 친구·친척·가족·담당 의사조차도 나의 이 시련을 책임져 줄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혼자자라는 사실과 나의 능력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부존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빙고 매한 앞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면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서원했습니다. 이 때부터 신원 23번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암송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기도와 고종 속에서 주님은 내게 '내가 너와 함께 할까'라는 음성과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주셨고, 그 믿음에 힘입어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도 단파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 그 동안 세상적으로 집착하며 낙담하기 그지없는 나를 부처이나 안타깝게 보시고 당신 앞으로 돌려 주시려고 뜨겁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

병은 점점 호전되어 갔습니. 그러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뜨겁게 우러나왔습니다.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어려움은 크지 않았습니. 이 투병생활 또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계획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

아직은 조심하며 지내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검사로는 정상인과 다르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습니. 고통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나같은 부족한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새로운 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준비된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 그러나, 나에게 다가온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부추키거나 허락하신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 투병생활을 통해 깨달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이웃들과 전하고 싶습니. 살아 계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며,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넓은 사랑으로 우릴 품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

(창22:1-8) 이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바칠 것을 명하시니 사랑하는 자라도 리에게 드리는 온유이 있었습니.



그의 유심이나 미련, 짧은 지식 때문에 이 순간 리에게 온유하여 나으지 못하는지 돌아보십니.



문과 및 아이디어제공 : minj74@jaangminn.com

기억하고 있나요?

물에도 어김없이 여름사역을 갑니다. 사역을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는 영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역 가서 만난 사람들! '매물도'라는 섬 마을 주민들, 우리 나라 땅 끝에서 위치한 해남에서 고추를 따시던 할머니, 강원도 두메산골 어르신들, 그리고 바다 건너 대륙의 쌍둥이 자매들까지...

그들이 여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도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며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교회에는 잘 다니고 있는지, 나는 그대 최선을 다해 전도했는지, 서울과는 다른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너무나 편하게 지내려고 급급했는지 등 잊었던 등등 이모저모 반성도 해보고 후회도 애씁니다.

비록, 대만 그곳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살아서 어디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경한 자들을 다 믿음 가운데서 이르게 하실 것을 믿기에 위로가 됩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랑을 그들이 믿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아니면 다른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되었든 이들을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울까요? 꼭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날 위해 기도하며 기억하고 있나요?"

(오미리 기자)

구역탐방

여호와의 뜻을 찾을 때

7교구 천호 4구역

언제 어디서나 세미한 손길로 도우시는 주님처럼, 천호 4구역 구역장님은 구역 모임을 위해 긴기 힘든 먼 곳에 계신 구역 식구들 한분 한분을 모셔오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 최귀훈 구역장님·이금진 전도사님·민외숙(타교) 권사님·장명숙 권사님·박두남 할아버님·소향은·김희숙·김재순·한대순 집사님, 특히, 성실집인 현수염을 빨간 고무줄로 묶고 청바지를 즐겨 입으신다는 신세대 할아버지(김보드 드 즐겨 타신단다) 이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하셨다. 좀 이색적인 구성원이지만 동일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은혜찬란한 예배가 시작되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찬송 366장)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생활이 결국 천국으로 인도되는 장면이 각자의 마음에 닿아 감사함으로 움직였다. 범죄의 길에 들어서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통해 죄에서 돌이키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도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났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게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6,7).” 정말 날마다 끔찍한 죄악으로 물든 현 시대를 살아가며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우리들의 연합함이 깊이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듯했다. 갈라디아서 5장 19-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시기과 분냄과...”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저지르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나 자신이 가장 쉽게 빠지는 부분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누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관이 되길 다짐하며 중보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돌아오는 길은 정말 뜨거웠을 오후였다. 열음이 동동 뜬 남문을 골짜기로 먹기도 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경작될 나 자신을 기뻐하기에 시원한 기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여름에도 시원함을 주시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선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손정희’ 성도를 소개합니다

전남 광주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직장 관계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광주에서 교회에 다녔고 서울에 와서 가까운 교회를 찾게된 것이 충현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이다. 낯선 서울에서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 깊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의 평안을 갖고 감사드리라는 신앙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새가족 환영하고 소개하는 시간에 박수치며 찬양으로 맞아주셔서 감사했다. 새가족부 집회를 통하여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게 되었고, 처음 와서 낯설지 않게 배려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린다. 어려울 때 의지할 분이고 항상 내 곁에서 날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김정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현재 한일 리츠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윤영순 집사님 인도로 충현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역삼동에 살고 있어서 교회가 가까운 것이 좋다. 새가족부 집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뜨겁게 잘 들어와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신앙 생활 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도 많이 많이 받고 싶다.

한옥진 (새가족부 통신원)

+ 양요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사 65:9).

5교구 한정자 성도(여63세) 혈소판 감소증으로 순천향 병원 839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6교구 홍동선 타교 집사(남57세) 감성선암으로 투병 중이며, 삼성 의료원에서 은혜 중에 수술이 잘 되어 퇴원하였습니다. 이제 2개월간의 방사선 치료가 남았습니다. 그간의 성도님들 기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꾸준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육체적인 아픔으로 상심하는 왕우연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 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의(義)

민병인 (권사, 장년부 2교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롬 14:17).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그 신비한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며 기도원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본 장마철의 햇살은 유난히도 맑고 화창했다.

제1강의 시간, 이윽전 목사님께서는 왜 성경을 믿는가? 또 성경을 읽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참 진리의 그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증거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다.

부흥사경회, 정현민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악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에 보충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찬미하고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보고 갈망하셨다.

“과연 나 자신이 오늘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하나님의 참 진리 앞에 새삼 무릎 꿇으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종소서, 날마다 나의 주님인심을 고백하며 살아도 부끄럽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천국의 소망! 예수님 재림!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추구하고 지녀야할 참 소망 일진대, 세상에서 자기의 복을 위하여 살고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만이 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갈망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다음날, 김종구 장로님의 특별기도회 시간에는 진정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는 기도원 분당을 가득 채웠다. “천부여 의지 없이서 손들고 읊나. 두 손 들고 찬송하는 나약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모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로 이터 내자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일 것이다.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다음주 일승

363장 ‘내 모든 시형 무거운 짐을’

미국의 복음적인 찬송가 “I must tell Jesus(예수님께 아뢰야 합니다)”를 옮긴 곡인데 작사자인 작곡가인 앨리스 호프만 목사는 펜실베이니아의 레바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교구 성도 중에 어느 한 부인이 심한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어느날 그녀의 집을 심방한 호프만 목사는 그녀가 자기 사정을 모두 이야기 한 후 “어떻게 하며 좋지요?”라는 질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슬픔) 맡기십시오”라고 권면하였다. 한침을 생각해 잠가있던 그녀는 한참 묵상하며 “네 기쁘게 하소서. 예수님께 다 아뢰옵소서.”라고 소리쳤다. 호프만 목사는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그녀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이 가사를 쓰고 작곡하였고, 이 찬송이 불리게 되었다.

1. 내 모든 시형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던 근심에 빠진 날 돌아보니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2. 내 모든 괴로움 다했는 한자 예수 앞에 아뢰이던 주에서 천하의 누룩 주사 내 모든 시형 배부하시네.
3. 내 것이 점점 무거워질 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던 주에서 천하의 누룩 주사 내 대신 짐을 주주소시네.
4. 미움의 시형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던 주에서 나의 행복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소시네.

후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한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부르는 방법 : 교백적으로

동현이의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박 선 영 (원학, 15교구)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15)

두 번째 때는 동현이의 여름 성경학교. 내가 어린이가 된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리곤 나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겠지만 방학과 함께 시작되는 여름성경학교는 나를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다. 시원한 산들바람과 땀냄새, 메모리하는 예배시간과 특강시간을 끝마치는 줄음에 빠지게 하지만, 율동과 찬양의 즐거움과 인형극과 활동기를 볼 때 볼을 끄고 커튼 치고 컴컴해지는 순간의 짜릿한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느라 입이 다 부르트고 코피가 날 정도였다. 비록 성경말씀, 목사님 말씀을 잊어버렸지만, 그 시간들이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귀한 시간이었음을 이제는 느끼며, 그때의 시간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신앙의 기초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고등

부, 청년부때 교사가 되어 다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여름성경학교 역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우고, 분반공부 준비로 공부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다시 학부로의 입장에서 맞이한 동현이의 여름성경학교가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동현이의 성화에 정신은 없지만 그러한 중에도 내가 그랬듯이, 동현이도 말씀과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믿으며 기도한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나눔의 삶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배우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빠와 엄마와 동현이가 서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배우고, '나눔의 장터'를 통해 배웠던 것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들 속에서 동현이도 나도 아파도 한 마음이 되어갔다.

'나눔의 장터'를 위해 가지고 갈 물건을 준비하면서 망설였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늘 주님께서 세워 주심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알파케지는 내 마음에 '이!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구나!', '연약한 나에게 항상 먼저 손 내미시는 예수님. 아빠와 엄마를 따라가는 동현이에게 부족한 인간의 모습은 감춰지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만을 배워가길,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반듯하게 비춰낼 수 있도록 아빠와 엄마를 정결케 하시길 간절히 기도했다.

준비된 행사는 모두 끝났고 동현이는 여전히 개구쟁이지만 그 마음에 뿌려졌을 복음의 씨앗이 커다랗고 든든한 믿음의 나무로 성장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가르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동현이가 일찍부터 알게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마쳤다.

동현이뿐만 아니라 모든 영아부 친구들이 전도사님께서 매일 일하시시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건강하게 자라가길 하나님께 기도한다.

유아부를 통해 느끼게 해 주신 주님

박 하 영 (유아부 교사)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평소 아이들이 관계이 많았던 나는 좋아하면서, 좀 더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때 생각난 곳이 유아부였다. "그래, 유아부에서 봉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유

아부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였다. 몇 주도의 교육을 받고, 나의 반을 맡게 되던 날, 정말 기뻐했다. 아이들을 하나하나의 이름을 되새겨 보고, 위우고... 아이들은 하나같이 참으로 예뻐했다. 그런 예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배워갔다. 첫째로, 하나님이나 나에게 내려주신 유아부의 교사란 직분, 정열감일 것이다. 유아부의 교사란 직분을 매우 책임감을 배워가고 있었으나, 둘째로 사랑이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면서 느끼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아이들은 매우 순수하기에 난 아이들을 통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순수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 셋째로, 나의 미래에 대한 자그마한 준비. 나도 언젠가 주님의 자녀를 낳게 될 텐데 이곳에서 주님의 올바른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있었기에 말이다. 이 밖에도 유아부를 통해 배운 것들, 또 배우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건, 나의 중심을 주강하여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님에게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나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 준 유아부 교사라는 지금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

부족한 나이에 앞으로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워 지 될 때도 많겠지만, 나의 중심에 계시는 내가 유아부 교사로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래도록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충헌교회 유아부 교사로 남고 싶다.

산림의 생

'예레미야(Jerem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또한 예레미야를 '유다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세 살구나 가지 환상' (1:11), '끓는 가마 환상' (1:13), '무회과 환상' (24:3) 등을 이심으로 보이셨으며, '백은 베마를 매는 일' (13:1), '토기장인의 집을 방문하는 일' (18:4), '오지병을 깨뜨리는 일' (19:10), '영애를 매는 일' (27:2), '돌을 애매에 파묻는 일' (43:3) 등, 백다는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유다의 멸망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에 대한 멸망을 이심으로 보이실 뿐 아니라, 행동이라는 '행위설교'의 방식으로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즉시로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그의 선포와 유별난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사게 하였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인기는 현현이 있었습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심하게 박박하기도 했으며, 그를 진흙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38:6).

그리고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서 예레미야의 사역과 사역의 대상을, 그리고 유다의 영적 상태를 정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유다의 멸망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해하기(1:10, 18, 6:16, 31:21, 6:17, 27, 8:21-22, 11:19, 12:5, 13:17, 20-21, 17:16, 23, 15:10, 17:8 등),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할 대상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2:1-8, 7:9-13, 14-19, 20-22, 23-25, 26-28). 또한 유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면서 읽으시고(특히 3장과 6장), 거짓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짓고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표현들도 빼놓지 마시고 정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5:13, 6:13-15, 23:1-8, 23:9-12, 32, 6:16, 18:15, 29:17, 24장, 23:28-29, 5:14, 23:15). (다음주에 계속)

(김동욱 목사·출판국 지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익숙함

인듯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매일 전 전도를 가기로 예정된 농촌 교회로 같은 부처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답사차 다녀왔다. 출발하기 전에 그 교회 오 전도사님이 때마다 전화를 주셨기에 약속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부활을 되었다.

"자유로까지 오실 수 있으요? 당동 인터체인지에서 나오셔서, 주유소가 보이면 우회전해서 고개 넘어 오시다보면 현명초소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좌회전해서서 장라대로 들어오시면 교회가 보이십니다."

농촌세라 품격이 적었다. '뭐 찾아가기 그리 어렵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십적인 부담에서 조금 편안했다. 그런데 당동 인터체인을 빠져 나온 후에 우리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같은 도로 위를 한 40분 가량 오가며 방향을 해야만 했다. 오 전도사님의 설명이 틀렸거나 내가 잘못 따라 적은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거리'였다.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현명초소까지 예상했던 거보다 먼 거리였던 것이다. 현명초소까지 미처 전에 우리는 길을 잘못 찾은 것이라고 판단해서 돌아갔다가 다시 가기를 여러 번 돌리는데 결국 우리와 함께 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이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인터체인지에서 10여 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무슨 공원을 보러 가위 위해 세종문화회관에 간 적이 있었다. 당시 선현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날이든 논현동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의 거리와 후쿠마 차 속에서 '엄마, 얼마나 더 가야 해?'라고 질질거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거리인데 집에 돌아오는 길은 마치 길이 짧아지거나 한 듯이 금방 도착하는 느낌을 받곤 했다. 더 커서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이유는 '익숙함'이었다. 이번 일도 어쩌면 그와 마찬가지로. 초행길이었을 우리에게 10분이라는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항상 그 길을 가다가 그 교회의 전도사님에게 있어 그것은 '교과 하나 반' 수준의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나에게 복음은 내가 항상 걸어온 신앙의 길기에 익숙하지만, 이제 처음 복음을 접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무심코 지나치기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농촌 전도와 단기 선교에서는, 자급자족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 어떤, 복음을 전한 자로서의 교만함도, 형식적인 전도의 불성실함도 주께서 도발하시길 소원한다.

(천현종 전도사)

교 회 소 식

모임

1. 장로 월요세례기도회
일시: 23일(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일기도회
일시: 24일(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남천전도부 월례회
일시: 오늘 15:20
장소: 강민홀
4. 군전교회 월례회
일시: 27일(금) 18:30(식사17:30)
장소: 베다니홀(메추라기홀)
5. 권사 전체 월례회
일시: 29일(다음주일) 15:00
장소: 강민홀
6. 권사 4교회 월례회
일시: 25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남천전도회

1. 바울 5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신교자정부실
2. 바울 7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새가족부사실 111호
3. 바울 10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20 후
장소: 복지관 지하1층
4. 베드로 7교회 월례회
일시: 26일(목) 19:30
장소: 권대 실링방
5. 베드로 8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20 후
장소: 교육모임장소
6. 베드로 16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20 후
장소: 교육관 407호
7. 루디아 6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육관 407호

안수집사 기도회

일시: 25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종동1부 여름수련회

주제: Teen Revival(심대 부흥)
기간: 25일-27일
장소: 충헌기도원/순교기념관

종동3부 여름수련회

주제: 믿음의 사람이여 세상을 정복하라
기간: 23일-25일
장소: 충헌기도원

교정전도회 교사 모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춘천에 있는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신년관)에서 여름 정경학교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교사로 봉사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교정전도회 사무실(내선207), 박양덕 전도사

경향전도회 여성중앙단 신앙전도 사역자 모임

대상: 소프라노 2명, 메조소프라노 1명, 앨토 1명
문의: 경향전도회 사무실
(이연진 집사 017-71-0501)

장애인 컴퓨터 교육생 모집

1. 자 격: 서울시 거주 장애인(단, 시각·청각 장애인 제외)
2. 교육내용: 윈도우, 인터넷 기초교육
3. 교육기간: 3개월 과정
4. 교육비: 무료
5. 문 의: 충헌복지관 ☎ 564-4885 / 지역사회재활팀

충헌복지관 무료 도서대출 안내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을 위해 도서대출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동서적부터 다양한 분야의 교양서적까지 두루 갖춰져 있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출시간: 월-금(오전 10:00-11:30, 오후 14:00-15:30)
위 치: 충헌복지관 2층(201호) 도서실
문 의: 충헌복지관 ☎ 564-4885 / 지역사회재활팀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02	장영호	7	예스리	윤종자(7)	611	윤종현	19	청년1부	최호일(15)
603	이희환	5	청년2부		612	황정호	3	청년2부	
604	이문용	11	바울	남선우(3)	613	장영희	3	청년2부	
605	김봉나	11	한나	남선우(3)	614	권이순	8	예스리	한예연(12)
606	박정훈	12	청년2부	강정식(12)	615	조태수	13	청년2부	노순옥(2)
607	최슬기	19	중동부		616	배준수	15	청년2부	
608	이수영	19	중동부		617	황정환	19	청년1부	최숙자(15)
609	이혜미	19	대학부		618	이은숙	19	대학부	최정아(194)
610	문경민	19	청년1부						

* 충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 단기선교사 모집

파송예정일: 2001년 8월말경
서류마감일: 7월29일까지
희망자는 단기평생도 선교사 지원서(소장장식)를 선교위원회에서 받아 구비서류를 제출함
지역: 남쪽 동쪽 사해교인으로서 정규 LMTC교육을 받은 자(집중LMTC는 자격이 되지 않음)
특히 어린이 사역에 경향이나 달란트가 있으면선발된 단기선교사는 훈련부 파송함.

충헌 지역회 후반기 정경학생 선발 일정 안내

1. 신청 마감: 오늘까지
2. 면접: 28일(토) 13:00 제1교육관 307호
(중·고등학교생 제외)
3. 정경학원: 8월 2일(목) 19:30 교회길(기도원)
8월 3일(금) 강요침회까지
(중·고등학교생 제외)



예배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후 2:00 (4학년, 5학년, 6학년)	본당
	V 오후 5:00 (초·중·고·대학생)	본당
한 달 예 배		
수 요 예 배	1:00-11:00 8:00-7:30	본당
금 요 회 집	오후 7:30	본당
세례기도회	오후 5:00	본당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감성관

■ 사무장

조진근 신도회장	김은호 기독교회	노영환 성경연구팀
오진국 목회부장	윤인현 교구위원장	최태원 신앙생활팀
임필성 성경연구팀	김정호 성경연구팀	이 훈 성경연구팀
남선우 성경연구팀	정운식 성경연구팀	김영철 성경연구팀
문종우 성경연구팀	조진태 성경연구팀	최두길 성경연구팀
김진태 성경연구팀	이정호 성경연구팀	김재명 성경연구팀
박영식 성경연구팀	김정남 성경연구팀	윤성철 성경연구팀
이하영 성경연구팀	박인진 성경연구팀	이병호 성경연구팀
안종욱 성경연구팀	최경환 성경연구팀	이종섭 성경연구팀
최기종 성경연구팀	이갑재 성경연구팀	전종철 성경연구팀
이정우 성경연구팀	김정호 성경연구팀	송 준 성경연구팀
한갑수 성경연구팀	김정호 성경연구팀	김환기 성경연구팀
원종현 성경연구팀	이정호 성경연구팀	황희만 성경연구팀
김주형 성경연구팀	최유덕 성경연구팀	이계인 성경연구팀
이대식 성경연구팀	김정호 성경연구팀	박용규 성경연구팀
조종환 성경연구팀	김정호 성경연구팀	김영대 성경연구팀
박찬식 성경연구팀	최정현 성경연구팀	이성호 성경연구팀

■ 부목사

이종성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김동하 교구위원장	차병준 교구위원장
이종성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김동하 교구위원장	차병준 교구위원장
이종성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김동하 교구위원장	차병준 교구위원장
이종성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김동하 교구위원장	차병준 교구위원장
이종성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김동하 교구위원장	차병준 교구위원장

■ 선교사

정원희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최은아 교구위원장	김요셉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최은아 교구위원장	김요셉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최은아 교구위원장	김요셉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최은아 교구위원장	김요셉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최은아 교구위원장	김요셉 교구위원장

■ 협력선교사

이종성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김동하 교구위원장	차병준 교구위원장
--------------	--------------	--------------	--------------

■ 찬양감독

이종성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김동하 교구위원장	차병준 교구위원장
--------------	--------------	--------------	--------------

■ 기도사

이종성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김동하 교구위원장	차병준 교구위원장
--------------	--------------	--------------	--------------

■ 예전도사

이종성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김동하 교구위원장	차병준 교구위원장
--------------	--------------	--------------	--------------

■ 교정전도사

이종성 교구위원장	정원희 교구위원장	김동하 교구위원장	차병준 교구위원장
--------------	--------------	--------------	--------------